

## 2022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총평 & 선별 좌표 (꽃피고 봄오면)

### 1. 총평

- 전반적으로 문항들이 괜찮습니다. 사실 모든 문항을 풀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지만... 그래도 수능과 가장 가까운 문항들, 지엽적이기는 해도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는 문항들의 좌표와 한줄평을 달아냈습니다! 선별해놓은 문항들만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. 중요한 문항들은 **진한 글씨**로 표시했습니다.

### 2. 선별 좌표 (중요한 문항은 진한 글씨)

#### 01 : 실천 윤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

- p.13 2번: 메타 윤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기 좋은 문항입니다.
- p.14 6번**: 수능과 가장 가까운 문항입니다. 수능에서는 각 입장을 갑,을로 제시할 겁니다.
- p.14 8번: 2021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20번 문항과 거의 흡사합니다!
- p.15 1번: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... 심화 내용을 학습하기 좋습니다.
- p.17 6번: 이런 문항들이 쉽지만 자주 나와서... 풀어보면 좋겠습니다!

#### 02 :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

- p.25 1번: 유교 사상... 알아야 합니다.
- p.25 3번: 불교 사상... 알아야 합니다.
- p.25 4번: 아퀴나스의 입장입니다. 모평에는 드물게 출제되지만, 알아두는게 좋습니다.
- p.26 8번**: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규칙 공리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.
- p.30 8번: 윤리와 사상에서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문항입니다. 선지들이 좋아서 적어둡니다.
- p.31 10번: 덕 윤리... 작년 수능에도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자주 나올거 같습니다.

#### 03 : 삶과 죽음의 윤리

- p.39 1번: 도가의 죽음관입니다. 수능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이니 알고 갑시다.
- p.40 8번: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입니다. 다른 사상가와 연계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p.41 2번**: 낙태 소재를 다루는 문항들은 생활과 윤리에서 자주 출제됩니다.
- p.42 3번**: 사실 순서도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... 풀어봅시다.
- p.43 5번: 하이데거, 실존주의 사상가의 죽음관입니다. 꼭 알아둬야 합니다.
- p.44 7번: 안락사... 자주 나오니깐 꼭 풀어봅시다.

#### 04 : 생명 윤리

- p.51 1번: 토론 유형을 안 풀어보고 갈 수는 없으니깐... 풀어봅시다.
- p.53 6번: 체세포 치료와 생식세포 치료는 자주 나오는 개념들입니다.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.
- 이 단원의 문항들은 이후 나오는 자연과 윤리 문항들과 다루는 개념들이 중복됩니다. 자연과 윤리 범위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풀어보시되, 따로 선별하지는 않겠습니다. 선별 문항들은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 다루겠습니다.

#### 05 : 사랑과 성 윤리

- p.59 1번: 자주 나오는 사상가의 제시문입니다.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.
- p.59 3번: 배려 윤리 사상가들이 모평이나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p.59 4번: 성과 사랑에 관한 보수, 중도, 자유주의의 입장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합니다.
- p.61 1번: 59쪽 1번 문항의 심화 버전입니다.
- p.61 2번: 보수, 중도, 자유주의 입장입니다. 모두 묻고 있는 문항이네요.
- p.63 6번: 가족 윤리 문항입니다.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중 하나입니다.

#### 06 : 직업과 청렴의 윤리

- p.70 1번: 정약용의 입장입니다. 이 단원에서의 정약용의 입장은 반드시 숙지하고 갑시다.
- p.70 2번: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고 있는 문항입니다. 꽤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.
- p.70 4번: 칼뱅은 부의 축적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! 반드시 알고 갑시다.
- p.71 8번: 마르크스의 입장입니다. 6,9,수능 중 적어도 한번은 출제될 것입날.
- p.75 8번: 순서도 문항으로 출제될 만한 단원은 아니지만 학습할 내용들은 풍부한 문항입니다.

#### 07 : 사회 정의와 윤리

- p.82 1번: 니부어의 입장입니다. 작년에는 아예 출제되지 않았지만, 올해는 나올 수 있습니다.
- p.82 3번: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추가된 왈처입니다. 반드시 알아두고 가야 합니다.
- p.83 5번: 사회 정의 윤리 사상가와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문항들 중 하나입니다.
- p.83 6번: 마르크스입니다. 7월 모의고사에 사회 정의 파트로 자주 나오는 사상가입니다.
- p.83 7번: 가장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시문도, 선지도 다 괜찮습니다.
- p.85 3번: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숙지하고 가야 합니다.
- p.86 5번: 롤스의 심화 문항입니다. 선지들이 모두 괜찮습니다.
- p.86 6번: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... 1번 선지가 특이해서 수록합니다.
- p.88 10번: 수능과 완전 똑같은 문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!!

#### 08 : 국가와 시민의 윤리

- p.94 2번: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 이론입니다.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!!
- p.94 4번: 올해 수능에도 출제된 향산 향심론입니다. 내년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..
- p.95 5번: 사회 계약론 사상가입니다. 윤리와 사상 수준까지 공부해두면 정말 좋습니다.
- p.95 7번: 롤스의 시민 불복종입니다. 모르면 큰일납니다.
- p.95 8번: 2021학년도부터 계속해서 출제된 싱어의 시민 불복종입니다. 중요합니다!
- p.99 7번: 수능과 가장 가까운 문항이고, 올해 수능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.

09 : 과학 기술과 윤리

- p.106 4번: 이 단원에서는 요나스가 출제될 가능성이 90% 이상입니다!
- p.107 6번: 과학자의 내적, 외적 책임에 관한 문항은 단골 유형이므로 알아둡시다.
- p.108 1번: 풀어만 보세요... 도덕 문제입니다.
- p.109 3번: 요나스 심화 문항입니다. 기본 문항을 통해 학습하셨다면 어렵지 않을겁니다.
- p.110 5번: 순서도 문항을 이 주제로 출제하지 않을거지만... 그래도 풀어보면 좋습니다.

10 : 정보 사회와 윤리

- p.116 3번: 출제되어도 딱 이 수준으로만 나오지 않을까... 예상해봅니다.
- p.117 7번: 이 단원에서는 딱히 선별할만한 문항들이 없어서... 이거라도...
- p.119 3번: 이 문항은 괜찮은거 같습니다. 무게감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풀어보면 좋습니다.
- p.121 7번: 알 권리, 잊힐 권리 문항입니다. 풀어만 봅시다.

11 : 자연과 윤리

- p.129 3번: 사례 적용보다는 칸트의 입장을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.
- p.129 4번: 평등 고려, 동일 대우... 늘 출제되는 내용이지만 알아는 뒤야합니다.
- p.130 5번: 레건입니다. 제시문과 선지들을 천천히 읽어보고 개념들을 숙지합시다.
- p.130 6번: 테일러입니다. 제시문과 선지들을 천천히 읽어보고 개념들을 숙지합시다.
- p.130 8번: 대지 윤리 사상가, 레오폴드입니다. 꼭 알아둡시다!
- p.132 3번: 수능과 가장 가까운 문항입니다. 진짜 중요합니다!!!
- p.132 5번: 이것도 수능과 가장 가까운 문항입니다. 중요합니다!
- p.134 8번: 흠... 풀어만 봅시다.

12 :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

- p.143 1번: 풀어만 봅시다.
- p.143 2번: 예술과 관련된 도덕주의의 입장입니다. 알아는 두어야 하니 풀어만 봅시다.
- p.143 3번: 플라톤의 예술관입니다. 배경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.
- p.145 1번: 2020학년도 수능 문항의 변형문제로 판단됩니다. 수능과 유사합니다.
- p.146 3번: 도덕주의, 심미주의를 비교하는 문항들은 단골 유형입니다.

13 :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 윤리

- p.154 1번: 유한계급, 과시소비와 같은 주제들이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흐름입니다.
- p.154 3번: 볼노브의 거주윤리입니다. 수능에 나왔어야 하는 사상가입니다.
- p.155 5번: 문화 정책들을 비교하는 문항입니다. 모의고사에 출제될 수 있겠군요.
- p.155 6번: 종교와 윤리입니다. 나올 수도 있겠으나, 출제 가능성은 조금 떨어집니다.
- p.156 1번: 안 풀고 가면 섭섭한 문제입니다. 풀어는 봅시다. 도덕 문제니깐요.
- p.156 2번: 문화 정책들을 비교하는 심화 문항입니다. 이렇게 나오지 않을겁니다.
- p.159 7번: 요즘 수능이 이런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.

14 : 갈등 해결과 소통, 민족 통합의 윤리

- p.167 3번: 이 단원에서는 하버마스가 출제될 가능성이 90% 이상입니다! 무조건 알아둡시다.
- p.169 2번: 하버마스 심화 문항입니다. 풀어봅시다.
- p.171 5번: 수특에 가끔 이런 재밌는 문항들이 수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p.172 7번: 통일과 관련해서 출제되면 주로 이런 그림 유형으로 출제됩니다.

15 : 지구촌 평화의 윤리

- p.178 1번: 현실주의 사상가의 입장입니다. 이상주의 사상가와 자주 비교됩니다.
- p.178 2번: 칸트의 영구 평화론 조항들은 외워두면 매우 유리합니다!
- p.178 3번: 갈통입니다. 칸트와 같이 출제되거나,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.
- p.179 7번: 해외 원조와 관련한 롤스의 입장입니다. 아마 싱어와 함께 출제될 것입니다.
- p.179 8번: 싱어와 노직입니다. 롤스와 함께 공부해두면 해외 원조에서는 학습이 마무리됩니다.
- p.180 1번: 이 유형으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p.182 6번: 갈통의 심화 문항입니다. 풀어봅시다.
- p.183 7번: 수능과 가장 닮아있는 문항입니다. 반드시 풀어봐야 합니다!
- p.183 8번: 싱어의 해외 원조 이론이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.